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라

What to do when fear strikes you

마가복음 4장 35-41절

-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

1. 설교 처음 예화에 제주도 자치단체에서 ‘관광객들이 잔디밭을 밟지 못하게 만든 묘책’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묘책은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을 이용한 방법이었나요? 이 예화를 통해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2.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40절)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은 무엇 일까요? 아래 문장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믿음은 내가 만난 두려움의 결론이 ○○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3. 두려움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커지는지, 두려움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4.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을 느낄 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마치 ‘잠자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말씀하셨던 ‘땅 속에 있는 씨앗’ 비유를 생각해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막4:26-27)

5.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을 묵상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막 4:41)

